

9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ESV]

「들어가면서」

우리는 타인의 허물과 약점은 너무나 쉽게 보면서, 정작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 두고, 그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꺼내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사랑의 핵심 속성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고전 13:7)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으며”는 단순히 무조건 참고 견디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στεγω(스테고)에는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고 은혜로 덮어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덮어 줌’의 차이」

4절의 ‘오래 참음’과 7절의 ‘참음(덮어 줌)’은 헬라어 원어상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전 13:4의 ‘오래 참고’

- 헬라어: 마크로투메오(μακροθυμέω, 마크로스 + 투모스)
- 어원: ‘길다•멀다’라는 뜻의 마크로스(μακρός) + ‘마음•분노•열정’을 뜻하는 투모스(θυμός)의 합성어입니다.
- 의미: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주로 타인에 대한 오랜 인내를 의미합니다.
- Keyword: 기다림

2) 고전 13:7의 ‘참으며’

- 헬라어: 스테고(στεγω)
- 어원: ‘지붕, 덮개’를 뜻하는 명사 스테게(στέγη)에서 유래했습니다.
- 의미: “지붕을 덮다”,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 내다”란 뜻으로, 타인의 ‘허물, 약점, 수치, 혹은 외부의 고난’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 Keyword: 덮어 줌

「스테고(στεγω): 신학자들의 통찰」

1) BDAG 헬라어 사전

“To protect or preserve by covering; to keep confidential, cover over, keep secret.”
(덮어서 보호하거나 보존하다; 비밀을 유지하다, 덮어주다, 감싸주다.)

2) 찰스 핫지 (Charles Hodge, 고린도전서 주석)

“Love covers all things. It conceals the fault of others, rather than exposing them.”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은 타인의 허물을 세상에 폭로하기보다 덮어주고 감싸준다.)

3) 윌리엄 바클레이 (William Barclay, 고린도전서 주석)

“Love can protect; it can throw a blanket of silence over the faults of others.”
(사랑은 보호한다. 사랑은 타인의 허물 위로 침묵의 담요를 덮어준다.)

「성경에 드러난 ‘덮어 줌’의 구속사적 흐름」

1) 구약의 기초: 가족옷과 속죄소

- 창세기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 출애굽기 25:17, 22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 해설: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만든 무화과나무 잎(인간의 노력)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수치를 완벽히 덮어 주셨습니다. 이 ‘덮음’의 개념은 성막의 속죄소(mercy seat)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속죄하다(카파르, כָּפַר)는 ‘덮다’(to cover)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증거판이 담긴 법궤 위를 속죄소가 덮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하지 않고 용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레 16:14-16).

2) 시편의 선포: ‘가려짐’의 복

- 시편 32: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covered) 자는 복이 있도다”
- 해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후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누린 복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려진(덮어진)’ 복이었습니다.

3) 신약의 성취: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 로마서 3:25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해설: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은 구약 성막의 ‘속죄소(법궤 덮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덮는 참된 속죄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덮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 줌의 은혜’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와 비참한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창고처럼

사랑은 덮는 것이다.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가리는 것이다. 덮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썩어 가는 것을 덮어두면 더 썩듯, 상처도 치료하지 않고 덮어 두면 더욱 악화된다. 진리가 부재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8과). 반면 치료하기 위해 덮는 경우도 있다. 반창고를 붙이는 경우다. 외부의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는 동시에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낫게 하는 방법으로 반창고를 사용한다. 죄의 수치와 상처를 덮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돕는다. [이국진, 『사랑』]

「적용하기: 셈처럼, 야벳처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으나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린 채 뒷걸음질 쳐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 드렸습니다(창 9:20-23).

허물을 들추어낸 함의 후손(가나안)은 구속사의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대한 복음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완전한 ‘덮어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적용 질문]

질문 1.

우리도 때로 노아처럼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허물이나 부끄러움을 덮어 준 사람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질문 2.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랑을 타인의 허물 위에 ‘침묵의 담요’를 덮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침묵의 담요’를 주셨습니다. 잠시 내 ‘침묵의 담요’ 재고를 확인해 봅시다. 지금 내가 그 담요로 조용히 덮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질문 3.

최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 주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그때 왜 그러지 못했는지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쉽지 않은 나눔이지만, 잠시 자신을 돌아본 후 겸손하게 나누어 봅시다.

*2026년 마지막 순 모임(10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함께 암송합니다.

남은 기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준비해 봅시다.